

북한 레짐 체인지? 칸트의 영구평화론, 윌슨주의, 그리고 국제정치적 파국*

Pushing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Kant's 'Perpetual Peace,' Wilsonianism, and Political Catastrophe in Northeast Asia

이현희 _경희대학교

Yi, Hyunhwee _Kyung Hee University

초록

이 연구에서는 현재 미국과 한국이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북한 레짐 체인지 정책 내지 정신을 철학적, 군사전략적, 동북아 국제정치적 역사적 수준에서 각각 검증하고자 한다. 그 검증 결과를 토대로 북한 레짐 체인지가 동북아 국제정치적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서 남한과 북한은 상호 공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먼저 레짐 체인지를 선도하는 윌슨주의의 철학적 기반이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근대 세계관에 뿌리를 둔 전형적인 근대 철학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것이 근대 철학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국제정치 현실과 지극히 동떨어진 이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기초로 입론된 레짐 체인지는 국제정치 현실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그것은 이라크 전쟁에서 거대한 재앙을 초래했다는 것 등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 국제정치적 장구한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을 고려할 때, 북한 레짐 체인지는 동북아 국제정치적 파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끝으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대체한 화이트헤드의 국제정치윤리에 입각해서 동북아에서 국제정치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주제어: 레짐 체인지, 영구평화론, 윌슨주의, 감정, 루틴, 동북아 국제정치적 파국

* 이 글은 한국국제정치학회 60주년기념 하계학술대회, "국제정치이론 분과"(2016년 6월 23일, 강원도 컨벤션호텔)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발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영남대학교 김학노 교수님, 논문을 읽고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경성대학교 권용립 교수님, 제주대학교 장원석 교수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임수환 박사님께 각각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Abstract

This study shall use philosophy, military strategy and Northeast Asian history to critically review the validity of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The conclusion is that if North Korea undergoes a regime change, it will bring about a political catastrophe in Northeast Asia. This type of regime change is commonly known as Wilsonianism or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is philosophically based on Kant's 'Perpetual Peace.' Kant's philosophical point of view has been shown to be completely bankrupted and thus can be seen as very unrealistic. This in turn makes the Wilsonianism perspective unrealistic. Following this line of thinking, it can be shown that the Iraq War gives us 'perpetual war' instead of the claimed 'perpetual peace.' This is not only a strategic failure, but also a political disaster. For the past two millennia,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North Korea has been an important strategic location for China, and these can cause serious problems because China is no longer a 'paper tiger' but rather a full-blown 'rising' powe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will inevitably result in a political catastrophe in Northeast Asia.

□ Key Words: Regime Change, Perpetual Peace, Wilsonianism, Emotion, Routine, Political Catastrophe In Northeast Asia

국제정치학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이른바 미국적 사회과학(American Social Science)으로 탄생했다.¹⁾ 그렇게 출범한 국제정치학은 국제정치 현실을 합리적으로 설명(explanation)하고 예측(forecasting)하는 것을 국제정치이론의 존재이유(raison d'être)로 천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제정치이론은 국제정치 현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²⁾ 합리적 예측은 더더욱 하지 못하고 있다.³⁾ 그렇다면 그런 국제정치이론의 존재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대답이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국제정치학 교과서에서는 것처럼 존재이유가 의문시되는 국제정치이론을 '표준

1) Stanley Hoffmann,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Daedalus*, Vol. 106, No. 3(1977), 41-60.
2) James Kurth, "Inside the Cave: the Banality of I.R. Studies," *The National Interest*, Vol. 53 (1998), 29-48.
3) John Lewis Gaddi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3 (Winter, 1992-1993), 5-58.

적인 이론'으로 소개하고 있으며,⁴⁾ 국제정치학 강의실에서는 그렇게 마련된 국제정치학 교과서로 습관적인 강의가 이뤄진다. 그런 가운데 국제정치학은 국제정치 현실로부터 끝없이 도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건만,⁵⁾ 오직 국제정치학자만이 그런 문제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정치이론이 직면한 문제를 외면하는 대신, 정면으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국제정치이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근원적 이유를 치열하게 추적하는 철학적 성찰을 수행해야만 한다. 바로 그것이 학자 본연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역시 학자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모순을 묵인하는 것은 지적 정직성과 도덕적 순수성을 파괴하는 행위다. 온갖 사유의 혼란을 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곧 지적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 우리가 어떤 정신을 견지하고자 그러한 사유의 혼란을 직시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⁶⁾

국제정치이론이 직면한 문제를 철학적으로 성찰했을 때, 두 가지 심각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결론은 국제정치이론의 ‘생명력’이 모두 고갈되었다는 사실이다. 현재 국제정치학계에서 통용되는 국제정치이론은 대부분 17세기 과학혁명을 계기로 탄생한 ‘근대’ 세계관에 입각해서 구성되었다. 그런데 근대 세계관은 20세기 초엽의 과학혁명을 계기로 완전히 붕괴되었다. 따라서 근대 세계관에 입각해서 구성된 ‘근대’ 국제정치이론 역시 그 시점에서 완전히 붕괴되었다. 그런데도 근대 국제정치이론이 지금껏 국제정치학 교과서에서 표준적인 국제정치이론으로 소개되는 현상은 약 100여년에 걸친 국제정치학의 지적 지체(intellectual lag)를 의미하는 것이었다.⁷⁾

4) 예컨대 존 베일리스 외, 하영선 외 옮김, 『세계정치론』 제6판 (을유문화사, 2015).

5) Joseph Lepgold and Miroslav Nincic, *Beyond the Ivory Towe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Issue of Policy Releva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국제정치이론에서 발견되는 현실 도피의 문제는 인문사회과학이론 전반에서 발견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안 샤피로는 현실에서 도피하는 인문사회과학이론의 문제를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한 바 있다. Ian Shapiro, *The Flight from Reality in the Human Sci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6) Alfred N.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Macmillan Co., 1950), 265-267.

7) 필자는 화이트헤드 시각에서 근대 세계관과 근대 국제정치이론의 철학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현희, “화이트헤드와 근대 세계관의 철학적 성찰,” 『화이트헤드연구』

두 번째 결론은 근대 국제정치이론으로부터 배양된 인간의 일상적 사유양식이 인류를 끊임없이 ‘파멸의 길’로 강제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E. 해리스는 근대 인문사회과학을 배경으로 형성된 인간의 사유양식이 지구 온난화, 환경 파괴, 핵 홀로코스트 등을 파생시킴으로써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양상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러면서 근대 국제정치이론에서 배양된 인간의 사유양식이 인류를 파멸의 길로 강제하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뉴턴 패러다임의 원자론 및 분리주의적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국제정치의 이론과 현장에서 나타났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국가 주권의 독립성인데, 현재 모든 인종집단은 그 개념을 요구하고, 모든 국민국가는 그것을 철저히 신봉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된 국민국가가 각자의 배타적 주권을 주장함으로써 국제정치적 난국이 생겨났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진지하게 성찰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 세계 문명을 자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위와 같은 낡은 정신적 편견을 시급히 떨쳐내는 것이 현재 인류가 직면한 과제다.”⁸⁾

이 연구에서는 현재 미국과 한국이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북한 레짐 체인지 정책 내지 정신을 사례로 상기 해리스의 두 번째 테제를 철학적, 군사전략적,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사적 수준에서 각각 검증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북한 레짐 체인지를 공식적 정책으로 채택한 경우는 정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⁹⁾ 북한 레짐 체인지 ‘정신’은 미국 대외정책의 역사 전체를 일관하는 지배적 신념이다.¹⁰⁾ 현재 박근혜 정부도 그런 정신을 강력하게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

제21집(2010), 123-165. 이현휘, “국제정치적 현실주의의 허상과 실상,” 『정치와 평론』 제6집(2010), 55-96. 이현휘, “주권주의적 원리와 미국적 국제정치학의 파국: 구성주의와 포스트모던리즘의 경우,” 『화이트헤드연구』 제28집(2014), 7-66.

8) 예를 E. 해리스, 이현휘 옮김, 『파멸의 묵시록: 과학적 패러다임과 일상의 사유양식』 (산지니, 2009), 104-105.

9) 미국의 북한 레짐 체인지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사례로는, James I. Matray, “The Failure of the Bush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 Critic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XVII, No.1(2013), 140-177. Robert S. Litwak, *Regime Change: U.S. Strategy through the Prism of 9/11*(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7), Chapter 7, “North Korea: Proliferation in a Failed State.” Kori Schake, “Pushing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Is a Bad Idea: Why Aggressively Trying to Topple the Kim Regime Could Backfire ... Badly,” *Foreign Policy* (December 29, 2014).

10) 자세한 내용은, 이현휘, “소명으로서의 전쟁: 미국 대외정책 정신과 신의 눈물,” 『현대사회와

에서는 북한 레짐 체인지가 동북아 국제정치의 파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그 와중에서 남한과 북한은 상호 공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먼저 레짐 체인지를 선도하는 월슨주의의 철학적 기반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이어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근대 세계관에 뿌리를 둔 전형적인 근대 철학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그것이 근대 철학이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국제정치 현실과 지극히 동떨어진 이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것이다. 따라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기초로 입론된 레짐 체인지는 국제정치 현실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그것은 이라크 전쟁에서 거대한 재앙을 초래했다는 것 등을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동북아 국제정치의 장구한 역사에서 반복된 패턴을 고려할 때, 북한 레짐 체인지는 동북아 국제정치의 파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끝으로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대체한 화이트헤드의 국제정치윤리에 입각해서 동북아에 국제정치적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레짐 체인지, 월슨주의, 그리고 칸트의 영구평화론

박근혜는 2016년 2월 16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 레짐 체인지 정책을 천명했다. “북한 정권이 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인권, 번영의 과실을 북녘 땅의 주민들도 함께 누리도록 해나갈 것이다.) ...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¹¹⁾

북한 레짐 체인지는 박근혜 뿐만 아니라 정치인 및 언론 등을 통해서도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천영우는 6월 16일 이용문 장군 탄생 100주년 호국

정치평론』 창간호(2007), 7-59. 미국의 20세기 레짐 체인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로는, Stephen Kinzer, *Overthrow: America's Century of Regime Change from Hawaii to Iraq* (New York: Time Books, 2006).

11) “차대통령, 대북정책 대전환 ... ‘北정권 변화 체제붕괴까지 언급(종합), 『연합뉴스』 (2016. 2. 16.)

안보 강연회에서 북한 레짐 체인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비핵화와 북한의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찾으려는 세력으로 교체해야 한다. ... 제재뿐 아니라 심리전, 대북 정보 유입, 대북 방송 등 종합적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¹²⁾ 19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던 나경원도 2월 15일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대북 전략에 대해 ‘북한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교체)’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까지도 생각해봐야 될 때”라고 말했다.¹³⁾ 『동아일보』는 1월 7일자 사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박대통령은 그동안 베이징과 워싱턴을 방문해 축적한 외교자산을 바탕으로 북의 정권교체(regime change)까지도 염두에 두고 끝장 제재에 나서도록 한미중 공조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역사의 대변환을 내다보지 않고, 핵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데 정부와 국민이 뜻을 모으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김정은 도발에 대한 응징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역사의 명령이다.”¹⁴⁾

박근혜 등이 역설한 북한 레짐 체인지는 미국에서 생산된 대외정책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짐 체인지는 미국 특유의 대외정책이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미국 대외정책을 그대로 모방해서 대북정책을 입안한 사례는 레짐 체인지로 국한되지 않는다. 예컨대 박근혜는 2013년 4월 9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 또 위기를 조성하면 타협과 지원을 하는 끝없는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느냐?” 이는 “‘긴장 고조 → 대화 유도 → 더 큰 보상요구’라는 북한 특유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뜻이다.¹⁵⁾ 그런데 오바마는 2013년 3월 13일, 지난 20년 동안의 북한 협상 패턴을 ‘식사투정’에 빗대어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북한은) 숟가락으로 식탁을 내리치고 나서는 갑자기 식량 원조나 다른 양보를 얻어간다.

12) “천영우 前 외교안보수석 ‘北 체제붕괴전략 가동해야,’” 『연합뉴스』 (2016. 6. 16.)

13) “나경원 ‘北 레짐 체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때,’” 『연합뉴스』 (2016. 2. 15.)

14) “(사설) 北4차 핵실험, 박 대통령이 美中 ‘끝장 제재’ 끌어내라,” 『동아일보』 (2016. 1. 7.)

15) “朴 ‘긴장 고조 → 대화 → 보상 요구 ... 對北 악순환 고리 더 이상 안 돼,’” 『한국경제』 (2013. 4. 9.)

그리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조금 협상하고는 지루해지면 또 도발한다. 미국은 이런 북한 패턴을 깨뜨려왔다.”¹⁶⁾ 오바마의 발언은 2011년 3월 1일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에서 발간한 청문회 보고서, “북한의 도발 사이클 타파하기”(Breaking the Cycle of North Korean Provocations)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¹⁷⁾

박근혜가 미국 대외정책을 반복해서 모방했다는 사실은 미국이 주도면밀하게 전개하는 선전 외교(public diplomacy)에 완전히 세뇌되었다(completely brain-washed)는 것을 의미했다. 그리고 그러한 세뇌에 입각해서 입안된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이익에 복무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엘리트가 미국의 선전외교에 세뇌된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권용립은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미국적 가치의 전 지구적 확산에 편승해 온 미국의 선전적 이미지부터 극복해야 한다.¹⁸⁾ ... 전통적으로 미국은 상대국의 여론을 겨냥한 ‘퍼블릭 디플로머시,’ 곧 선전 외교에 치중해 왔다. 국무부에는 전담 부서까지 있다. ... 냉전시대의 미국은 국력 차이가 엄청난데도 한국을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선전 외교에 주력했다. 한국 엘리트층의 전통적 대미관은 이러한 외교의 산물이기도 하다. ... 탈냉전 시대의 한-미 관계를 정치·군사 현안에만 국한시켜 조율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선전 외교처럼 한국도 한국에 대한 호감과 이해가 희박한 워싱턴을 겨냥한 선전 외교를 양국관계를 조율할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중국이나 동남아의 한류 열풍에는 흥분하면서도 정작 한반도 국제정치의 불가피한 상대인 워싱턴을 겨냥한 선전 외교는 염두에 없는 듯하다. 워싱턴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와 외교 관계가 없는 중국이나 소련 전문가만 있고 미국 전문가는 없는 현상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미국을 ‘한국의 대상’으로 보지 않던 냉전시대의 기형적 세계관이 지금도 여전하다는 증거다. 친미 아니면 반미라는 개항시대의 이분법적 세계관으로 한-미관계를 전망하는 우스꽝스런 현실도 양쪽 모

16) “오바마 ‘중국의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다,’” 『한국일보』 (2013. 3. 14.)

17)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One Hundred Twelfth Congress, First Session (March 1, 2011).

18) 권용립, 『미국의 정치문명』 (삼인, 2003), 26-27.

두 미국을 바깥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한-미 관계를 지향한다는 정치권의 큰소리가 공허한 까닭은 이것이다.¹⁹⁾

추광영 역시 미국이 장악한 국제 커뮤니케이션의 정치적 선전에 우리가 부지불식간 세뇌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허버트 실러에 따르면) 매스컴에 의한 세계 제패과정에서 필수적인 이념적 도구가 바로 자유유통의 원칙이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미 국무장관 덜레스는 미국의 대외정책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서슴없이 ‘정보의 자유유통 원칙’을 택하겠다고 하여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사실 ‘자유유통의 원칙’의 추진과정과 미국의 세계 헤게모니 장악과정의 시기는 일치하고 있고 Schiller는 이것이 우연이 아닌 의도적 정책이었음을 밝히고 있다.²⁰⁾ ... Tunstall은 세계적으로 볼 때 모든 매체는 미국이 석권하고 있어 ‘The Media are America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특히 미국 TV 프로그램의 수출이 세계 도처에서 미국에 대한 정치적 저항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²¹⁾ ... 필자 등의 한 연구에서는 우리 편집인들의 가치 판단 기준도 다분히 서구적 상업주의에 경도되고 있음이 밝혀 지기도 했다. 통신사 및 신문사의 현직 편집자들과 대학신문 기자들을 대상으로 뉴스 판단 기준을 평가하기 위한 동 연구에서 밝혀진 것은 직업적 언론인들은 대학신문 기자들에 비하여 제3세계 뉴스보다 제1세계 뉴스를, 그리고 선정적 흥미위주의 상업주의적 기사를 더 선호한 반면 대학신문 기자들은 상대적으로 제1세계 뉴스와 선정적 뉴스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이 강했으며, 이 경향은 직업 언론인의 경험이 오래일 수록, 그리고 선진국 여행 또는 연수 경험이 많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²²⁾ ... 서구적 뉴스 기준에 편향된 외신 보도는 우리의 뇌리에 왜곡된 세계상(distorted world image)을 형성할 뿐 아니라 우리를 상업주의, 선정주의적 가치에 익숙해지도

19) 권용립, “‘선전 외교’에 눈을 돌려라,” 『한겨레』 (2006. 4. 4.)

20) 추광영, “제3세계와 신국제정보질서 운동” 추광영,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05), 222.

21) 추광영, “한국 외신보도의 문화적 함의,” 추광영,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320.

22) 같은 논문, 323. 자세한 내용은, Choo, Kwang Yung and Hyeon-Dew Kang, “Korean Journalists’ Dependence on News Judgment,” 추광영,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341-356.

록 조건화시킴으로써 서방 선진국의 문화 상품이 침투해 들어오기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된다. 더욱이 ‘뉴스’ 즉 세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 제공의 연원 역할을 하는 외신보도라는 채널을 통한 지배적 가치의 유입 및 이식은 다른 어떤 형태의 문화적 침투보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이데올로기적 영향 또한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²³⁾

그러면 우리가 미국의 선전 외교에서 유포한 이미지를 탈각하고, 레짐 체인지의 실상에 다가설 경우 어떤 이미지가 새롭게 드러나는가?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렸지만, ‘테러와 전쟁’을 장기간 지속시키는 가운데 지속적인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전쟁과 유사한 장기전을 또다시 반복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른바 월슨주의(Wilsonianism) 내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로 지칭되는 국제정치이론이 미국 대외정책을 계속해서 지배하기 때문이다.²⁴⁾ 월슨주의의 요체는 지구상에서 민주주의 국가가 확산되어야만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은 결국 비민주적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월슨주의는 결국 무력을 수단으로 비민주적 국가를 민주적 국가로 변환시키는 ‘레짐 체인지’ 정책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목표는 2-3년 정도의 단기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낙관적 신념 또한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테러와 전쟁의 이름으로 실천된 월슨주의가 중동 지역에서 초래한 것은 평화가 아니라 끝없는 전쟁이었다.

월슨주의의 철학적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만나게 된다.²⁵⁾ 칸트는 ‘공화정으로 구성된 연방’을 통해 영구평화가 가능하다고 주장

23) 추광영, “한국 외신보도의 문화적 함의,” 337.

24) Lloyd E. Ambrosio, *Wilsonianism: Woodrow Wilson and His Legacy* (New York: Palgrave, 2002). G. John Ikenberry et al., *The Crisis of American Foreign Policy: Wilsonian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Frank Ninkovich, *The Wilsonian Century: U.S. Foreign Policy since 19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9).

25) Michael W.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2, No. 3(Summer, 1983), 205-235. Michael W. Doyle,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art 2,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2, No. 4 (Summer, 1983), 323-353.

했기 때문이다.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가이어야 한다. ...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²⁶⁾ 하지만 칸트는 자신의 영구평화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영구전쟁의 참상(perpetual war for perpetual peace)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²⁷⁾ 프랑스 혁명처럼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비공화정을 공화정으로 급격하게 변화시킬 때 무자비한 폭력이 파생될 수 있다는 사실에 몽매했기 때문이다. 윌슨주의가 중동 지역에서 레짐 체인지를 강제적으로 추진하면서 초래한 작금의 참상도 우연이 아니었다. 많은 학자가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자유주의적 제국주의(liberal imperialism), 자유주의적 비자유주의(liberal illiberalism), 전면전(total war)의 원천 등으로 비판하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²⁸⁾

최근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상징하는 국제정치이론이 대부분 근대 이성의 기획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현실적 한계를 지녔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성의 기획에서 누락된 국제정치 세계의 ‘감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그래서 2014년에는 국제정치학 학술지에서 감정과 세계정치(Emotions and World Politics)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학술 포럼을 특집으로 수록하기까지 했다.²⁹⁾ 그러나 국제정치학계에서 감정을 이론화하는 과제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정치학자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문제, 인간의 신체와 감정 간의

26) 임마누엘 칸트, 이한구 옮김, 『영구평화론: 하나의 철학적 기획』 (서광사, 2008), 제2장, “국가 간의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

27) Robert A. Divine, *Perpetual War for Perpetual Peace*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2000).

28) Michael C. Desch, “America’s Liberal Illiberalism: The Ideological Origins of Overreaction in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3(winter 2007/08), 7-43. Michael C. Desch, “Benevolent Cant? Kant’s Liberal Imperialism,” *The Review of Politics*, vol. 73(2011), 649-656. Robert Bernasconi, “Perpetual Peace and the Invention of Total War” in Christopher S. Yates and Nathan Eckstrand, eds., *Philosophy and the Return of Violence: This Widening Gyre*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2011), 44-60.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옹호한 사례로는, James Lindley Wilson and Jonathan Monten, “Does Kant Justify Liberal Intervention?” *The Review of Politics*, Vol. 73, No. 4(2011), 633-647.

29) “Forum: Emotions and World Politics” in *International Theory*, Vol. 6, No. 3 (2014). 이 포럼에는 2편의 대표논문과 그 논문에 대한 7편의 코멘타리가 수록되었다.

연계를 해명하는 문제, 인간의 감정이 인간의 신체 외부에서 존재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과정과 연계되는 논리를 해명하는 문제, 인간의 감정이 국가라는 집단의 감정과 연계되는 과정을 해명하는 문제 등등이 아직까지 미결된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³⁰⁾ 그런데 이런 문제는 대부분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철학에서 명쾌하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국제정치학자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화이트헤드의 철학을 참고하면서 국제정치학이 당면한 이론적 난제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화이트헤드는 칸트의 이성 중심 철학이 “인간의 진정한 경험의 구조를 전도시켰다”(an inversion of the true constitution of experience)고 비판했다.³¹⁾ 화이트헤드는 인간의 경험이 두뇌의 이성적 추론뿐만 아니라 신체에서 느끼는 ‘감정’까지 포함한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전자와 후자의 비중을 ‘10:90’으로 비정(比定)할 정도로 후자를 전자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위에 두었다.³²⁾ 화이트헤드가 볼 때, 칸트는 인간의 경험에서 90%의 비중을 차지하는 감정을 무시하고, 10%에 불과한 취약한(fragile) 이성을 철학의 기초로 삼는 한계를 지녔던 것이다. 따라서 순수 이성의 기획으로 도출된 칸트의 영구평화론이 현실에서 적실성을 확보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100여 년 전에 화이트헤드로부터 ‘감정으로의 전환’(emotional turn)이 극적으로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다.

화이트헤드는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1939년에 국제정치와 관련된 논문, “인류의 양식에 호소한다”(An Appeal to Sanity)를 발표했다. 화이트헤드는 이 논문에서 국제정치를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힘은 국가 간의 ‘집단적 감정의 변화’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역설했다.

국제정치세계에서는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과 완화되는 국면 사이에서 집단적 감정이 부침을 거듭하는 대조적 국면이 번갈아 발생한다. 국가 간의 긴장이

30) Emma Hutchison and Roland Bleiker, “Theorizing Emotions in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Theory*, Vol. 6, No. 3(2014), 491-514.

31) Alfred N. Whitehead, *Process and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1978), 173.

32) Alfred N. Whitehead, *Dialogues of Alfred North Whitehead*, as recorded by Lucien Price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56), 188.

완화된 국면에서는 어떤 국제정치적 문제가 야기한 특정 지역의 혼란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남는다. 그래서 여타 국가의 집단적 감정을 거의 자극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정치 문제는 지역 수준의 외교적 합의나 분쟁의 형식으로 해결되며, 설혹 전쟁이 발발해도 국지적으로 한정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정된 국제정치적 문제를 하나씩 해결할 수 있다. 특정 국제정치적 문제가 여타 문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 간의 긴장이 고조된 국면에서는 국가들 상호간의 격앙된 집단적 감정이 충돌하고, 그렇게 충돌한 집단적 감정이 다수의 국가로 확산되면서 온갖 종류의 국제정치적 문제를 혼란에 빠트린다.³³⁾

요컨대 끊임없이 레짐 체인지를 강요하는 국제정치이론은 윌슨주의로 통칭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였고, 윌슨주의의 철학적 기반은 칸트의 영구평화론이었다. 하지만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국제정치 현실과 동떨어진 칸트의 이성 중심 철학에 입각해서 입론된 것이었다. 그러면 것처럼 낮은 철학적 기반 위에서 입론된 레짐 체인지를 북한에 강제할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2. 이라크 전쟁과 레짐 체인지의 환상

국제정치학 시각에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시도할 경우 초래되는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과학은 끊임없이 창출되는 역사의 새로운 면모를 결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Science can never foretell the perpetual novelty of History.)³⁴⁾ 하지만 군사전략적 시각에서, 그리고 역사학적 시각에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차선의 방책은 존재한다. 2절에서 전자를 검토하고, 3절에서 후자를 검토하기로 한다.

칼 폰 클라우제비츠는 미래의 전쟁을 대비할 때 전쟁사에서 가장 최신의 사례를 선택해서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역사적 사례는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혀줄 뿐만 아니라, 경험과학 분야에 가장 확실한 종류의 증거를 제

33) Alfred N. Whitehead, “An Appeal to Sanity” in A. H. Johnson, Ed., *Whitehead's American Essays in Soci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9), 111.

34) Alfred N. Whitehead, *Modes of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6), 142.

공해주는 부수적 효과도 있다. 이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전쟁술(the art of war)의 영역에서 더욱 그러하다. ... 우리가 역사적 사례를 사용할 때 수반되는 난점은 물론, 역사적 사례를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하게 파악했을 때, 우리는 최신의 전쟁사가 역사적 사례를 도출하기에 가장 적절한 분야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그 전쟁사는 널리 알려져 있고, 잘 이해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 고대의 전쟁사는 우리와 상이한 여건에서 전개되었으며, 따라서 전쟁 수행 방식도 다르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사는 우리에게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덜 교훈적이다. ...”³⁵⁾

미국의 전쟁사에서 레짐 체인지를 추구한 최신의 사례로는 ‘이라크 전쟁’을 꼽을 수 있다. 현재 이라크 전쟁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에 따라 전쟁의 성격도 비교적 분명하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군사전략적 시각에서 이라크 전쟁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주지하듯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쟁은 그저 그런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여타의 비군사적 수단과 함께 정치적 교섭을 계속하는 진정한 정치적 수단이다. ... 정치적 계획이 목표이고, 전쟁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이다. 전쟁이란 수단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목표와 분리되어서 고려될 수 없다.”³⁶⁾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이라크의 평화라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³⁷⁾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도 전투 현장에서는 패배한 적이 없었지만,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³⁸⁾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까닭은 미국이 전쟁에서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를 잘못 설정하는 오류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오류를 반복하는 까

35) Karl von Clausewitz, “On War,” trans. by O. J. Matthijs Jolles in *The Book of War: Sun-tzu “The Art of War” & Karl von Clausewitz “On War”*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00), 382-386.

36) *Ibid.*, 280.

37) Ali A. Allawi, *The Occupation of Iraq: Winning the War, Losing the Pea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7).

38) Harry G. Summers, Jr. *On Strategy: A Critical Analysis of the Vietnam War* (New York: The Random House Publishing Group, 1995), 1.

닭은 미국이 클라우제비츠가 강조한 전쟁의 정치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습성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⁹⁾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윌슨주의에 입각해서 이라크 전쟁의 주요 목표를 레짐 체인지로 설정했다.⁴⁰⁾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이라크에 덧씌우면 독재자로부터 해방된 이라크 국민 다수의 열렬한 환영 속에서 민주주의를 쉽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현재 ‘환상’으로 판명되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제도의 이식만으로는 정착시킬 수 없다. 민주주의 제도는 민주주의적 ‘관습’의 지지가 존재해야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관찰하면서 도달한 결론이 바로 이것 아니었던가? “국가의 관습에 뿌리를 두지 못한 법률은 항상 불완전하다. ... 오직 미국 국민만이 민주주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까닭은 미국인의 관습이 그 제도를 지지하기 때문이다.”⁴¹⁾ 서양에서는 고대 및 중세의 도시를 배경으로 혈연 등과 같은 사적 유대로부터 해방된 ‘시민’을 탄생시켰다.⁴²⁾ 이후 5대 근대 시민 혁명, 즉 12-13세기 이태리 혁명, 16세기 네덜란드 혁명, 17세기 영국 혁명, 18세기 미국 혁명 및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적 관습을 정착시켰다.⁴³⁾ 다시 말해서 서양 근대 민주주의는 고대, 중세, 근대의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형성된 ‘민주주의적 관습’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 사회를 지배하는 관습은 서양의 민주주의적 관습과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녔다. 단적으로 전자에서는 혈연, 학연, 지연 등과 같은 사적 유대가 해체되지 않은 반면, 후자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39) 미국이 수행하는 전쟁의 ‘반클라우제비츠적’ 성격에 관해서는, 이현휘, “전쟁과 평화: 미국 전쟁 수행 방식의 ‘반정치적’ 성향을 사례로” 『정책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86호(2015), 35-83.

40) Michael MacDonald, *Overreach: Delusions of Regime Change in Iraq*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4), 2-3.

41) Alexis de Tocqueville, *Democracy in America*, Vol. I. (New York: Vintage Books, 1990), 284, 322.

42) 자세한 내용은, 이현휘, “고대 중세 시민의 역사적 전개: ‘호모 폴리티쿠스’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이동수 편, 『시민은 누구인가』 (인간사랑, 2013), 33-78.

43) 막스 베버 저 이상률 옮김, 『유교와 도교』 (문예출판사, 1990), 93.

그래서 베버의 지배유형으로 표현하면 이라크의 정치 질서는 전통적 지배 (traditional domination)에 근사한 것인 반면, 서양 민주주의는 합리적 지배 (rational domination)에 근사한 것이 된다.⁴⁴⁾ 미국은 전쟁을 수단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이라크에 강제할 수는 있었지만, 서양에서 수천 년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민주주의적 관습은 이라크에 이식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미국의 레짐 체인지는 미국에서 급조한 민주주의 제도와 이라크에서 수천 년간 전승된 역사적 관습 간의 격렬한 충돌을 야기했다. 예컨대 이라크 사회는 각종의 사적 유대 및 종교적 분파 등이 착종되면서 고착된 관습 때문에 극단적으로 분열된 양상을 만성적으로 표출한다. 그래서 독재자와 같은 강력한 권력의 소유자가 존재해야만 정치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다.⁴⁵⁾ 그러나 이라크의 독특한 사회적 관습에 몽매했던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한 직후, 군을 해산시키고 바트당 (Ba'ath Party)의 당원까지 숙청함으로써 이라크의 정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권력과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시켜버렸다.⁴⁶⁾ 그러자 이라크는 미국이 견잡을 수 없는 정치적 혼란의 도가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다.⁴⁷⁾

레짐 체인지가 월슨주의, 칸트의 영구평화론 등과 같이 현실과 동떨어진 근대 국제정치이론을 기초로 입안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할 경우, 미국이 이라크에서 정치적 파국에 직면한 까닭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이라크의 장구한 역사에서 전승된 관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기존의 관습을 민주주의적 관습으로 전환시키는 난제 중의 난제를 간과했다. 미국의 정치 엘리트가 신봉한 월슨주의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기초로 입론된 것이었고, 따라서 그들 역시 이라크 사회를 지배하는 독특한 관습에 전적으로 몽매했던 것이다.⁴⁸⁾ 그런데 관습은 화이트헤드가 중시했던 ‘감정’이 굳어지면서 구체화된 것이다. 따라서 관습을 거스를 경우 곧바로 감정적 반발이 뒤따

44) 베버의 지배유형에 관해서는,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952-954.

45) Allawi, *The Occupation of Iraq*, 15 참조.

46) MacDonald, *Overreach*, 5.

47) Ibid., 6.

48) Allawi, *The Occupation of Iraq*, 1-16.

르도록 되어있다.⁴⁹⁾ 미국이 이라크에서 추진한 레짐 체인지는 이라크 사회를 지배하는 관습을 강력하게 거슬렀다.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이라크의 격렬한 감정적 반발을 촉발시켰다. 이러한 감정적 반발은 이라크 내부의 정치적 파국을 조장했고, 이라크 외부에서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가 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했다. 현재 많은 중동지역 전문가가 “이라크 전쟁이 없었다면 이슬람 국가가 탄생하지 않았을 것”⁵⁰⁾이라고 말하는 배경이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각주 33번에서 화이트헤드가 지적했던 것, 즉 중동 지역의 집단감정이 고조되면서 각종의 국제정치적 난제가 양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뿐 아니다. “시간이 갈수록 베트남 전쟁을 빼닮아가는 이라크 전쟁”⁵¹⁾은 장기전의 수렁으로 빠져들면서⁵²⁾ 미국 국력의 쇠퇴를 강제하고 있다.⁵³⁾

이라크의 정치적 파국은 해리스의 두 번째 테제, 즉 근대 국제정치이론에서 배양된 인간의 사유양식과 사회적 행위가 인류를 파멸로 강제한다는 테제를 적나라하게 예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이론을 북한에 또다시 밀어붙이면 이라크의 정치적 파국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 그럴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북한 레짐 체인지를 강변하는 우리들 자신이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박승관은 오래 전에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바 있다.

49) 자세한 내용은, Alfred N. Whitehead, *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 (New York: Capricorn Books, 1959), Chapter 3.

50) Lissie Dearden, “Former US military adviser David Kilcullen says there would be no Isis without Iraq invasion,” *The Independent*(2016. 3. 5.) Martin Chulov, “Tony Blair is Right: without the Iraq war there would be no Islamic State,” *The Guardian*(2015. 10. 25.) Michael Kinsley, “How the Bush Wars Opened the Door for ISIS,” *Vanity Fair*(2015. 5.) Dilly Hussain, “ISI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US-led war on Iraq,” *Foreign Policy Journal*(2015 3. 23.) Paul Rogers, “Blowback: Iraq war to Islamic State,” *Open Democracy*(2015. 8. 13.)

51) 권용립, 『미국 외교의 역사』 (삼인, 2010), 665.

52) Ronald Bruce St. John, “Parallels Between Iraq War and Vietnam War Are Piling Up: Dead Soldiers, Dead Women, Dead Children, and Other Results of U.S. War,” *The Progress Report* (April 28, 2004).

53) Stephen Walt, “When Did the American Empire Start to Decline?” *Foreign Policy* (August 2, 2011).

토크빌이라는 여러 선배들 잘 아시는 프랑스 사회과학자가 있습니다. 그 분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쓸 때 미국을 어느 정도 공부했냐 하면 9개월 동안 미국을 여행하고 나서 분석한 것입니다. 제가 있는 서울대 정치학과, 외교학과에 소련 전문가, 일본 전문가, 중국 전문가는 있어도 북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북한에 기본적도 없고 저 역시 북한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TV에 나오고 교과서에 나오고 선생님들 말하고 ... 북한에 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최고도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저 자신도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은 국가정보원, 내외통신에서 나온 파편적 정보들이나 국가가 장악한 정보, 교과서들 이런 것이었고, 심지어 미국에 가서도 북한관련 정보는 무서워서 마음대로 못 봤습니다. 북한을 누가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저만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아까 어느 분인가 지적하셨듯이 TV에 나와서 북한에 대해서 토론하는 교수들이 북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토크빌 같은 천재가 9개월 동안 여행하고 나서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언론인들은 그보다 더 뛰어난 천재여서 일주일 가보고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습니까? 물론 상황은 개선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비로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다각도로 접근할 기회와 정보가 풍요로워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희망적이고 또 바람직한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로 우리의 그런 취약성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철저히 아는, 북한처럼 잘 아는 나라가 없지만 북한처럼 모르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TV가 김정일 얼굴 한번 비취주니까 갑자기 국민 전부가 생각이 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일 신드롬의 배경은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도 몰랐던 그 무지의 체제로부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극단적인 지식과 극단적인 무지의 분열적인 양상, 이것이 바로 우리 분단체제가 강제한 우리들의 의식체계고 그것이 배경으로 돼서 김정일 신드롬이 나왔던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저는 여기서 어느 언론인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 북한을 모르냐고 추궁할 생각도 없고, 나는 여러분보다 북한에 대해서 잘 안다고 주장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솔직하게 출발해야 될 지점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린 토론의 공간으로서의 언론의 기능이 중요하고 그런 정보의 확산과 획득 이것이 오히

려 더 중요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감성적 접근에서 벗어난 이성적 접근이랄까, 그래서 앞으로 혹시 나나 여러분, 후배나 선배 중에 토크빌 같은 북한학자가 나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토크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⁵⁴⁾

그러나 박승관이 제기한 문제는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로 해결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북맹’(北盲)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에서 4년간 대북협상을 담당했던 김진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북한 전문가를 찾기가 매우, 정말 매우 어렵다. 선정적이고 편향된, 진리와 진실을 가리며 여기는 오염된 전문가들,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전문가 아닌 전문가들이 난무한다. ... 오래전부터 정말 진지하게 우리 사회에 던져보고 싶었던 질문이다. ‘우리는 북한 체제와 제도, 사회, 경제, 문화, 사회운영의 작동원리와 구조 등 그 진짜 모습의 10%라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만약 누군가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총체적 무지>에 빠져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총체적 무지’는 ‘실재’고 ‘현실’이다.”⁵⁵⁾ 개성공단의 한 중견업체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했던 박상철도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킴명이나 문맹처럼 우리나라의 99.9%가 북한에 대해 거의 모르는 ‘북맹’이라고 생각합니다.”⁵⁶⁾

북맹 문제는 우리가 접하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양적으로 증가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과거 소련을 연구했던 전문가가 소련의 평화적 붕괴를 예측할 수 있는 경험적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을 구비하지 못함으로써 실패했다. 즉 그들은 ‘잘못된 개념의 희생자’(the victims of faulty conception)였던 것이다.⁵⁷⁾ 우

54) 박승관, “관훈 세미나 토론,” 『관훈저널』, No.77(2000), 143-144.

55) 김진향 외, 『개성공단 사람들』 (내일을여는책, 2015), 24-25.

56) 위의 책, 103.

57) Richard Ned Lebow and Thomas Risse-Kappen, Eds.,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5), 3.

리가 북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접하면서도 북맹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대부분 북한에 대한 극단적 적대감을 갖고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해석한다. 베버는 그런 식의 해석을 ‘가치판단’(value judgment)이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연구자가 가치판단을 수행할 경우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나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쓴 저작의 분석을 통해, 학자가 자신의 가치판단을 개입시킬 때마다 ‘사실’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중단된다는 것을 입증할 용의가 있습니다.”⁵⁸⁾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뒤로 하고, 북한 그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베버의 용어로 ‘가치자유’(value free)의 원칙을 견지하고서 북한을 해석해야한다는 말이다. 냉전 종식 후 소련 외교 문서가 다수 공개되었지만, 냉전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가 그 문서를 가치판단에 입각해서 해석함으로써 냉전에 대한 이해를 거의 진척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베버의 명제를 정확하게 예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⁹⁾

그러면 북한의 실상에 어두운 북맹이 이라크에서 반증된 레짐 체인지를 또다시 북한에 강제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 미국과 한국에서 북한 레짐 체인지를 강변하는 자들은 김정은이라는 ‘악’만 제거하면 북한 민주주의라는 ‘선’이 비교적 손쉽게 도래하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은 김정은 체제가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독특한 ‘관습’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관습은 서양의 민주주의 제도를 지지하는 민주주의적 관습과는 완전히 상이한 성격을 지녔다는 것, 따라서 북한에 인위적으로 덧씌운 민주주의 제도는 북한 특유의 관습으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받으면서 이내 와해되리라는 것, 따라서 김정은을 제거한 후 초래된 북한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김정은보다 더욱 강력한 ‘악’이 요청될 수 있다는 것, 케네스 퀴노네스 역시 ‘김정은을 제거해도 북한 정권은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 강력한 군사정권(militaristic regime)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던 것,⁶⁰⁾

58) 막스 베버 저 전성우 옮김, 『직업으로서의 학문』 (나남, 2011), 64.

59) 자세한 내용은, 이현휘, “‘소명으로서의 역사학과 ‘정치로서의 역사학’-서양과 중국 역사 서술 정신의 대비,”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제14권 2호(2015), 190-197.

60) C. Kenneth Quinones, “Dealing with North Korea: Can Balloons and Confetti Change North

이라크 사례가 이러한 일련의 로드맵을 적나라하게 예증하고 있다는 것 등등에 전적으로 몽매하다. 하지만 그들이 몽매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북한이 위치한 동북아 국제정치적 조건의 특수성이 바로 그것이다.

3. 북한 레짐 체인지와 동북아 국제정치의 파국

북한 레짐 체인지를 강제할 경우 동북아 국제정치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역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야만 한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역사의 미래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⁶¹⁾ 그러면서도 역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사회는 안정성을 요구하고, 예측 그 자체는 안정성을 전제하는데, 그 안정성은 루틴의 산물이다”(Society requires stability, foresight itself presupposes stability, and stability is the product of routine.)⁶²⁾ 즉 화이트헤드는 먼저 사회의 루틴을 통찰한 다음, 당대의 특수성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예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⁶³⁾ 여기에서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루틴은 관습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관습은 강력한 관성을 본성으로 지녔다. 따라서 루틴 내지 관습은 사회에서 일단 정착하면 수백 년 내지 수천 년 이상 지속되는 전형적 특성을 보인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루틴을 “모든 사회체계의 신”(the god of every social system)⁶⁴⁾과 같은 것으로 평가하면서 개별적인 역사적 사실보다 형이상학적으로 우선시했다.⁶⁵⁾ 그러면서 역사를 장구하게 관찰하는 루틴을 통찰하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결정적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생활이 루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서 곧 지혜가 시작된다.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루틴이 스며있지 않으면 문명은 소멸하고 만다. 예리한 지성의 소산인 수많은

Korea?” 『정치와 평론』 제15집(2014), 120.

61) 각주 34번 참조.

62) Alfred N. Whitehead,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55), 97.

63) *Ibid.*, 99-100.

64) *Ibid.*, 96.

65) *Ibid.*, 97.

사회학적 학설들이 이렇게 근본적인 사회학적 진리를 망각함으로써 와해의 길을 걷고 있다.”⁶⁶⁾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윌슨주의가 루틴 내지 관습을 간과함으로써 현실 앞에서 와해된 경우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레짐 체인지가 동북아 국제정치 현장에서 야기할 문제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사를 장기간 관찰한 루틴을 통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동북아 국제정치의 역사 특유의 루틴은 어떤 패턴을 보이는가?

동북아 국제정치의 장구한 역사에서 전개된 루틴을 통찰한 연구들⁶⁷⁾ 종합하면 몇 가지 독특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국제정치는 중국과 북방 유목 세력 간의 패권이 교차되는 패턴을 보였다. 중국은 국력이 신장되면 반드시 북방 유목 세력을 구축했고, 북방 유목 세력 역시 국력이 신장되면 중국을 구축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런 패턴은 한과 흉노 사이에서, 당과 돌궐 사이에서, 송과 거란(여진, 몽고) 사이에서, 명과 원 사이에서, 명과 청 사이에서 각각 반복되었다. 개리 레자드는 중국이 북방 유목 세력을 구축하는 시기를 ‘양 국면’(Yang phase)으로, 북방 유목 세력이 중국을 구축하는 시기를 ‘음 국면’(Yin phase)로 각각 개념화했다.⁶⁸⁾ 필자는 루틴에 입각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화이트헤드의 방법을 수용할 때, 작금의 미중관계 역시 위와 같은 패턴의 연장선장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은 과거 북방 유목 세력을 대체한 세력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⁹⁾ 작금의 미중관계는 중국이 부

66) Ibid., 96-97. 필자는 사회의 루틴이 성립하는 과정을 철학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이현휘, “미국 혁명의 종교적 기원(1): 화이트헤드와 탈근대 역사학의 새로운 지평,” 『화이트헤드연구』 제11집(2005), 17-22.

67) 예컨대, 토마스 바필드, 윤영인 옮김, 『위태로운 변경: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1989). Owen Lattimore,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1940). Sechin Jagchid and Van Jay Symons, *Peace, War, and Trade and along the Great Wall: Nomadic-Chinese Interaction through Two Millenni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Gari Ledyard,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313-353. Michael D. Swaine and Ashley J. Tellis,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t, Present, and Future* (RAND, 2000), Chap. 3, “The Historical Context.”

68) Ledyard,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314.

69) 자세한 내용은, 이현휘, “미국 대외정책의 관습과 21세기 미중관계의 전망,” 『미국사연구』

상하면서 미국을 서서히 압박하는 ‘양 국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 국면과 음 국면이 교차할 때, 한반도에서는 반드시 전쟁이 발생했다.⁷⁰⁾ 한과 흉노의 패권이 교체할 때 위만조선이 정벌되었고, 당과 돌궐의 패권이 교체할 때 고구려가 정벌되었으며, 송과 거란의 패권이 교체할 때 고려는 수차례의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 원·명 교체기의 고려 멸망, 명·청 교체기의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도 같은 패턴을 반복한 것이었다. 이런 역사적 패턴에 입각해서 작금의 동북아 국제정치를 조망할 때, 한반도는 현재 ‘역사적 순간’(historic moment)에 처했다고 진단해 볼 수 있다. 앞으로 미중 패권의 각축이 심화될수록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은 역사적 순간에 처한 한반도의 위상을 예증하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 문제는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해야지 남북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해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 북한에 대한 극단적 적대감에⁷¹⁾ 매몰된 나머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강대국이 지배하는 국제정치 현실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⁷²⁾

셋째, 중국이 양 국면과 음 국면 교체기에 대비해서 한반도에 취한 전략은 전통적 ‘제이책’(制夷策)중에서 오랑캐와 제휴해서 다른 오랑캐를 제압하는 ‘연이제이책’(聯夷制夷策)이었다.⁷³⁾ 한무제는 위만조선과 제휴해서 흉노를 제압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자 위만조선을 정벌하고 그 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리고 한사군을 설치한 목적을 ‘흉노의 왼팔을 자르기 위해서’(斷匈奴左臂)라고 천명했다.⁷⁴⁾ 돌궐과 패권을 다투던 수와 당은 고구려와 제휴하는 것

제29집(2009), 157-198.

- 70) 양 국면과 음 국면 교체기에서 오직 여진만 고려를 침략하지 않았다. 이는 고려가 여진을 상대로 갈등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또 여진을 돈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다. Ledyard,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339.
- 71) ‘북한에 대한 극단적 적대감’은 한국인의 DNA에 각인된 신유학의 신념윤리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83번 참조.
- 72) 자세한 내용은, 각주 86번 참조.
- 73) 중국의 전통적 제이책을 상세히 검토한 연구로는, 이춘식, “양한대의 제이책과 기미책의 성격에 대하여,” 『동양학』 제25집(1995), 169-209.
- 74) 이춘식, 『중국 패권의 뿌리와 이념』 (고려대학교출판부, 2014), 251-252.

이 여의치 않고, 오히려 돌궐과 고구려 간의 제휴 가능성이 엿보이자 국가의 사활을 걸고서 고구려를 정벌했다.⁷⁵⁾ 그리고 그 자리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다. 송 역시 고려와 제휴해서 거란, 여진 등을 제압하려는 정책을 취했고, 명 또한 조선과 제휴해서 청을 제압하려는 정책을 취했다. 특히 임진왜란 시기의 명, 한국전쟁 시기의 중국 등은 국력이 쇠잔한 ‘음 국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병력을 파견해서 북한과 만주 일대를 전략적으로 확보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패턴의 연장선상에서 숙고할 때, 중국은 현재 핵무장한 북한과 제휴해서 중국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는 ‘연이제이책’을 실천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중국은 임진왜란 시기의 명이나 한국전쟁 시기의 중국과 달리 ‘양 국면’에 진입해 있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critical fact)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중국이 북한을 매개로 실천하는 연이제이책이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파워’를 지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간파한 견해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필자에게 정세현의 다음과 같은 견해는 매우 중요한 타견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은 군사동맹과 다름없는 관계다. 61년에 체결된 조중우호 및 상호원조 조약, 줄여서 ... 조중동맹을 보면 매우 강력하다. 1조는 어느 일방이 제3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때는 타방이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어 있다. ... 중국이 가지고 있는 대외동맹 조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북한과의 동맹조약이다. 중국의 심장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이다. 그런 동맹조약을 가지고 있는 북중, 중북 간에 미국이 하리는 대로 중국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 중의 착각이다.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북중 간의 동맹은 깨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달라고 하는 보수 측의 입장은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얘기다. ... (2013년) 2월 28일 경 중국 공산당 중앙당 학교의 40대 중반의 젊은 교수가 영국의 파이널셀타임즈에 기고를 했다. 중국이 북한을 흔내 주어야 한다는 논지로 기고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교수는 보직해임이 됐다. 그 사람은 후진타오-원자바오 리더십을 비판하는 글도 썼던 적이 있다. 자기네 지도부의

75) Wolfram Eberhard, *A History of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169-170, 176-179.

리더십에 비판하는 글을 써도 그냥 지나갔는데, 북중관계에 대해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직해임 당했다. ... 지금 우리가 조선을 혼내거나 버리는 경우에 미국이 중국을 포위해 들어오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된다고 그러나, 미국이 시키는 데로 하지는 이야기이나. 그렇게 된 것이다.⁷⁶⁾

조너던 스펜서 역시 북핵문제를 다루는 6자 회담에서 중국이 견지한 입장은 약 400여 년간 지속된 역사적 전통(historical lineage)의 연장선장에 있는 것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런 전통에 몽매하다고 지적했다. 즉 중국이 1592년 임진왜란, 1894년 청일전쟁,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까닭은 모두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일본과 미국의 침략을 각각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중국이 6자 회담에 참여하는 까닭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⁷⁷⁾ 냉전 종식 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의 지원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⁷⁸⁾ 1994년 6월 초 미국이 유엔체제 밖에서 3단계 다자적 제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베이징은 평양과 1961년에 체결한 상호안전방위조약이 아직도 유효하며, 만약 북한이 공격을 받는다면 북한의 안보를 위해 중국은 개입의 의무를 지고 있음을 시사했던 것,⁷⁹⁾ 그리고 바로 그 즈음 최광 북한군 총참모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군사협력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⁸⁰⁾ 등등 역시 2000년 이상 견지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즉 연이제이책의 맥락에서 적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 레짐 체인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면 한반도는 한국전쟁과 유사한 ‘대리전쟁’(proxy war)의 터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대리전쟁은 동북아 국제정치의 파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76) “정세현, ‘한미동맹 강화하면서 북중동맹 깨라고? ... 상황 모르는 얘기,’” 『폴리뉴스』(2013. 4. 21.)

77) Jonathan D. Spence, “The Once and Future China,” *Foreign Policy*, Vol.146(2005), 44-46.

78) 이춘식, “북한 뒤의 중국 전략,” 『동아일보』(1994. 11. 10.)

79) 사무엘 김, “북미협상과 북한의 전략,” 관태환 외,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 175.

80) Samuel S. Kim, “The Dialects of China’s North Korea Policy in a Changing Post Cold-War,” *Asian Perspective*, Vol. 18, No.2(1994), 29-30.

것이다. 일찍이 레이몽 아롱은 냉전기 미소 간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평화는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다”(peace impossible, war unlikely)라고 전망했다.⁸¹⁾ 아롱은 미국과 소련이 보유한 핵무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제시했는데, 결국 그의 전망은 옳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핵전쟁을 우려해서 직접적인 충돌은 피했지만, 미국과 소련 양국의 대리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으며,⁸²⁾ 한국전쟁이 냉전기 첫 번째 대리전쟁을 기록했다. 중국 공산혁명 이후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했다면 ‘대만’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모택동은 대만마저 점령해서 중국 통일을 완성하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만 인근에 군사력을 집결시킨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막스 베버가 제시한 ‘신념윤리’(the ethic of conviction)가 창궐하는 한반도에서⁸³⁾ 남한과 북한, 좌익과 우익 간의 극한 대립이 전개되는 가운데 한국전쟁이 촉발되었고, 그러자 미국과 중국이 참전하면서 3년간의 치열한 대리전쟁이 전개되었다. 따라서 21세기 미중 패권이 각축하는 와중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만 하는 상황은 한반도에서 대리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빌미를 우리 스스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지극히 우려스럽기만 하다. 미국과 중국 양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양국의 미래 역시 “평화는 불가능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적다”고 전망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과 일본은 오래 전부터 남중국해 도서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만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또다시 한반도는 신냉전의 대리전쟁의 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작금의 남중국해 갈등의 모멘텀이 한반도로 이동함으로써 한국전쟁과 유사한 대리전쟁을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남북 간의 극단적 혐오감, 남한의 대북 풍선 날리기,⁸⁴⁾ 북한

81) Pierre Hassner, *Violence and Peace: From the Atomic Bomb to Ethnic Cleansing*, trans. by Jane Breton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1997), 14.

82) Andrew Mumford, *Proxy War: War and Conflict in the Modern World* (Cambridge: Polity, 2013), 1-10.

83) 한국정치를 지배하는 정치윤리는 신유학을 배경으로 주조된 ‘신념윤리’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휘, “정당 대변인의 ‘말과 한국정치의 관습” (사)한국정치평론학회 편, 『미디어와 공론정치: 정치평론이란 무엇인가?』 (인간사랑, 2011), 173-213. Chang Hao, “On the Ching-shih Ideal in Neo-Confucianism,” *Ch'ing-shih wen-t'i*, Vol.3, No.1(1974), 36-61.

인권 서울 사무소 설치,⁸⁵⁾ 개성공단 폐쇄,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미국의 사드 도입 계획,⁸⁶⁾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레짐 체인지 의지 등은 모두 한반도의 대리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변수들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작금의 남북관계의 긴장을 최고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⁸⁷⁾ 그 자체가 대리전쟁의 빌미를 적나라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 전쟁 직전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이지 못했던 것처럼, 작금의 남북한 정치인들 역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현재 남북한의 많은 정치인들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는 ‘신념윤리’에 매몰되어 한반도의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 있다.⁸⁸⁾ 그리고 신념윤리가 빚어낸 한국 국민의 지배적인 정서 또한 그런 추세에 더욱 뜨겁게 불을 지르면서 스스로를 애국자로 ‘착각’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클라우제비츠가 강조한 전쟁의 정치적 성격, 미국 전쟁 수행 방식의 ‘반정치적’ 성격,⁸⁹⁾ ‘양 국면’(Yang phase)에 진입한 중국의 증강된 군사적 능력, 무엇보다도 2000년 이상 관찰된 동북아 국제정치의 루틴(routine) 등에 몽매한 ‘얼치기’ 안보전문가들, ‘가치자유’의 시각에서 북한을 정확하게 분석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북한 전문가처럼 행세하는 탈북자들, 그리고 이들을 끊임없이 인용해주고, 출연시켜주고, ‘빨아주는’ 한국의 주류 언론 등이 한국

84) 대북 풍선 날리기의 반정치적 성격에 관해서는, Quinones, “Dealing with North Korea,” 117-122.

85) 인권은 국제정치의 주제가 될 수 없다. 국제정치는 어느 정도 전쟁과 같은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Raymond Aron, *The Committed Observer*, trans. by James and Marie McIntosh (Chicago: Regnery Gateway, 1986), 247.

86) 한반도에 사드를 도입하는 것은 ‘양 국면’(Yang phase)에 진입한 중국의 군사적 능력, 중국의 전통적 대한반도 정책인 연이제이책, 그리고 2000년 이상 관찰된 동북아 국제정치의 루틴(routine) 등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다. 따라서 중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과소평가는 강대국이 지배하는 국제정치 세계의 ‘무자비한’ 권력의 본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87)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킨 최근의 역사적 과정을 상세하게 검토한 사례로는, 임기홍, 『위기의 남북관계』 (역사인, 2016).

88) 각주 83번 참조.

89) 각주 39번 참조.

국민 다수의 북한에 대한 맹목적 분노를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다라의 돼지’(Gadarene swine)처럼 동북아 국제정치의 파국의 길로 돌진하고 있지 않은가?

4. 화이트헤드의 철학과 국제정치적 평화의 길

화이트헤드는 1925년 로웰 강좌에서 당대의 학문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리는 이미 종교, 과학, 정치사상 등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만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그런 시대가 상이한 극단 사이에서 단지 맹목적으로 방황하는 사태를 피하도록 만들려면 진리를 심층적으로 탐구해야만 한다. 그런데 진리의 심층을 탐구하려면 반드시 철학에 의존해야 한다. 철학이란 진리의 심층에 깔린 추상개념을 완전히 설명하는 것을 본분으로 삼기 때문이다.”⁹⁰⁾

화이트헤드가 90여 년 전에 제기한 문제는 국제정치학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제정치학은 근대 국제정치이론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제를 아직껏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대 국제정치이론에서 배양된 인간의 사유양식과 사회적 행동이 인간을 파멸로 강제한다는 해리스의 테제도 부지불식간 방관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방관이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를 북한 레짐 체인지를 사례로 검토했다. 그러면서 화이트헤드가 90여 년 전에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제정치학의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된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나 월슨주의 등과 같은 근대 국제정치이론을 근원적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 그래서 국제정치적 평화를 실질적으로 약속할 수 있는 사유양식과 행동양식을 모색하고자 할 때, 화이트헤드가 제시한 국제정치윤리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화이트헤드는 근대 국제정치이론에서 누락된 국가간의 집단적 감정의 변화에 착안해서 국제정치적 갈등 내지 전쟁을 피하고, 국제정치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따라야 할 일련의 국제정치윤리를 제시했기 때문이다.⁹¹⁾ 존슨(A. H. Johnson)은 그것의 다양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90)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51-52.

91) Whitehead, “An Appeal to Sanity,” 111-135.

정리했다.

국제정치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만 한다. (a) 전쟁은 그 어떤 경우에도 최종적 해법과 만족스런 해법이 될 수 없다. (b) 국제정치적 갈등의 상황에서 각 강대국이 책임져야할 영역이 존재한다. (c) 명료하게 확정된 국제정치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d) 국제정치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e) 국제정치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f) 정치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많은 원칙들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g) 정치적 타협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h) 다양한 추세를 조정하는 것이 인간의 사회적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의 이면에 깔린 신념은 적대국가의 감정적 반응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⁹²⁾

화이트헤드가 제시한 국제정치윤리는 칸트의 그것과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화이트헤드의 경우 국제정치세계에서 집단적 감정의 반응을 대단히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양차 세계대전은 민족주의라는 집단적 감정의 충돌로부터 파생된 것이었다. 작금의 동북아시아에서 고조되는 국제정치적 긴장 역시 한중일 각국의 민족주의적 감정이 조장하는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화이트헤드는 칸트의 영구평화론이나 윌슨주의에서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를 공화정이나 민주정으로 ‘개종’시켜야 한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다. 화이트헤드는 공화정이나 민주정과 다른 국가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대신, ‘신의 선물’(godsend)로 간주하면서 서로 협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우리나라와 다른 관습을 지닌 국가는 적대국이 아니다. 그들 역시 신이 보내준 선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웃들에게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사한 그 무엇,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충분히 상이한 그 무엇, 존경심을 유발할 정도로 충분히 위대한 그 무엇을 요구하곤 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서 그런 덕목을 모두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단지 이웃에게서 흥미를 유발할 정도로 색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에

92) Johnson, Ed., *Whitehead's American Essays in Social Philosophy*, 29-30.

만족할 줄도 알아야만 한다.”⁹³⁾ 윌슨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지구상에서 전쟁을 영원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참전’(to end all wars)한다고 역설했다.⁹⁴⁾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것처럼 완벽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물론 화이트헤드가 전쟁 그 자체를 무조건 부정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쟁은 반드시 최종적 수단(the last resort)이 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⁹⁵⁾ 화이트헤드가 제시한 이러한 일련의 국제정치윤리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간주해서 레짐 체인지 대상으로 배척하는 대신, 북한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한국 국제정치학의 존재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본다.

- ▶ Submitted : 2016. June. 22
- ▶ Reviewed : 2016. June. 24
- ▶ Accepted : 2016. June. 27

93) Whitehead,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298.

94) Thomas J. Knock, *To End All Wars: Woodrow Wilson and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95) Whitehead, “An Appeal to Sanity,” 135.

References

- Allawi, Ali A. 2007. *The Occupation of Iraq: Winning the War, Losing the Peac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Ambrosio, Lloyd E. 2002. *Wilsonianism: Woodrow Wilson and His Legacy*. New York: Palgrave.
- Aron, Raymond. 1986. *The Committed Observer*, trans. by James and Marie McIntosh. Chicago: Regnery Gateway.
- Barfield, Thomas. 1989. *Witaeroun byeongyeong: Giwonjeon 221nyeoneseo giwonhu 1757myeonkkajiuu yunokjegukgwa jungwon*. Dongbugayeoksajadan.
- Bayless, John Oe. 2015. *Segyejeongchiron*, Je6pan. Seoul: Euryumunhwasa.
- Bernasconi, Robert. 2011. "Perpetual Peace and the Invention of Total War" in Christopher S. Yates and Nathan Eckstrand, Eds., *Philosophy and the Return of Violence: This Widening Gyre*, 44-60. New York: Continuum International.
- Chang Hao. 1974. "On the Ching-shih Ideal in Neo-Confucianism," *Ch'ing-shih wen-t'i*, Vol.3, No.1, 36-61.
- Choo, Kwang Yung. 2005. "Je3segyewa singukjejeongbojilseo undong," Choo, Kwang Yung, *Dijiteol sidaeui geullobeol keomyunikeisyeon je8jang*. Seouldaehakgyo eollonjeongboyeonguso.
- _____. 2005. "Hangung oesinbodoui munhwajeong hamui," Choo, Kwang Yung, *Dijiteol sidaeui geullobeol keomyunikeisyeon je11jang*.
- Choo, Kwang Yung and Hyeon-Dew Kang. "Korean Journalists' Dependence in News Judgment," Choo, Kwang Yung, *Dijiteol sidaeui geullobeol keomyunikeisyeon je12jang*.
- Choon S. LEE, "Bukan dwiui junggung jeollyak," *Dongailbo* (1994. 11. 10.)
- _____. 1995. "Yanghandaeui jeichackgwa gimichaegui seonggyeoge daehayeo," *Dongyanghang je25jip*, 169-209.
- _____. 2014. *Junggung paegwomui ppuriwa inyeom*. Seoul: Goryeodachakgyochulpanbu.
- Chulov, Martin. 2015. "Tony Blair is Right: without the Iraq war there would be no Islamic State," *The Guardian*.
- Clausewitz, Karl von. 2000. "On War," trans. by O. J. Matthijs Jolles in *The Book*

- of War: Sun-tzu "The Art of War" & Karl von Clausewitz "On War," 249-984. New York: The Modern Library.
- Dearden, Lissie. 2016. "Former US military adviser David Kilcullen says there would be no Isis without Iraq invasion," *The Independent*.
- Desch, Michael C. 2007-2008. "America's Liberal Illiberalism: The Ideological Origins of Overreaction in U.S.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2, No. 3, 7-43.
- Divine, Robert A. 2000. *Perpetual War for Perpetual Peace*. College Station: Texas A&M University Press.
- Doyle, Michael W. 1983.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art 2,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2, No. 4, 323-353.
- _____. 1983. "Kant, Liberal Legacies, and Foreign Affairs," *Philosophy & Public Affairs*, Vol. 12, No. 3, 205-235.
- Eberhard, Wolfram. 1971. *A History of China*.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addis, John Lewis. 1992-1993.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 17, No. 3, 5-58.
- Gim Jinhyang Oe. 2015. *Gaeseonggongdan saramdeul*. Seoul: Naeireuryeoneunchaek.
- Gim Samuel. 1997. "Bungni hyeobsanggwa bukanui jeollyag," Gwak tachwan oe, *Bukanui hyeobsangjeonlyaggwa nambughan gwangye*, 163-186. Gyeongnamdaehakgyo geukdongmunjeonguso.
- Gweon, Yong Lib. 2003. *Migugui jeongchimunmyeong*. Seoul: Samin.
- _____. "Seonjeonoegyoe'e nuneul dollyeola," *Hangyeole* (2006. 4. 4.)
- _____. 2010. *Migug oegyoui yeogsa*. Seoul: Samin.
- Harris, Errol E.. 2009. *Pamyeorui muksirong: Gwahakjeong paereodaimgwa ilsangui sayuyangsik*. Busan: Sanjini.
- Hassner, Pierre. 1997. *Violence and Peace: From the Atomic Bomb to Ethnic Cleansing*, trans. by Jane Breton. Budapest: Central European University Press.
- Hoffmann, Stanley. 1977. "An American Social Science: International Relations," *Daedalus*, Vol. 106, No. 3, 41-60.
- Hussain, Dilly. 2015. "ISI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the US-led war on Iraq," *Foreign Policy Journal*.
- Hutchison, Emma and Roland Bleiker. 2014. "Theorizing Emotions in World Politics,"

- International Theory*, Vol. 6, No. 3, 491-514.
- Ikenberry, G. John et al. 2009. *The Crisis of American Foreign Policy: Wilsonianism in the Twenty-first Centur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Im Gihong. 2016. *Wigiui nambukgwangye*. Yeoksain.
- Jagchid, Sechin and Van Jay Symons. 1989. *Peace, War, and Trade and along the Great Wall: Nomadic-Chinese Interaction through Two Millenni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Jeong Sehyeon. “Hanmidongmaeng ganghwahamyeonseo bukjungdongmaeng kkaer-ago? ... Sanghwang moreuneun yaegi?,” *Pollinyuseu* (2013. 4. 21.)
- Kant, Immanuel. 2008. *Yeongguppyeonghwaron: Hanau cheolhakejeong gihoek*. Paju: Seogwangsa.
- Kim, Samuel S. 1994. “The Dialects of China’s North Korea Policy in a Changing Post Cold-War,” *Asian Perspective*, Vol. 18, No.2, 5-36.
- Kinsley, Michael. 2015. “How the Bush Wars Opened the Door for ISIS,” *Vanity Fair*.
- Kinzer, Stephen. 2006. *Overthrow: America’s Century of Regime Change from Hawaii to Iraq*. New York: Time Books.
- Knock, Thomas J. 1992. *To End All Wars: Woodrow Wilson and the Quest for a New World Order*.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urth, James. 1998. “Inside the Cave: the Banality of I.R. Studies,” *The National Interest*, Vol. 53, 29-48.
- Lattimore, Owen. 1940.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 Lebow, Richard Ned and Thomas Risse-Kappen Eds. 1995.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End of Cold Wa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edyard, Gari. 1983.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313-353.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epgold, Joseph and Miroslav Nincic. 2001. *Beyond the Ivory Tower: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the Issue of Policy Releva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twak, Robert S. 2007. *Regime Change: U.S. Strategy through the Prism of 9/11*.

-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acDonald, Michael. 2014. *Overreach: Delusions of Regime Change in Iraq*.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Matray, James I. 2013. "The Failure of the Bush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 Critica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XVII, No. 1, 140-177.
- Michael C. Desch. 2011. "Benevolent Cant? Kant's Liberal Imperialism," *The Review of Politics*, vol. 73, 649-656.
- Mumford, Andrew. 2013. *Proxy War: War and Conflict in the Modern World*. Cambridge: Polity.
- Ninkovich, Frank. 1999. *The Wilsonian Century: U.S. Foreign Policy since 19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rk, Sung Gwan. 2000. "Gwanhun semina toron," *Gwanhunjeoneol*, No.77.
- Quinones, C. Kenneth. 2014. "Dealing with North Korea: Can Balloons and Confetti Change North Korea?" *Jeongchiwa pyeongnon* je15jip, 117-122.
- Rogers, Paul. 2005. "Blowback: Iraq war to Islamic State," *Open Democracy*.
- Schake, Kori. 2014. "Pushing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Is a Bad Idea: Why Aggressively Trying to Topple the Kim Regime Could Backfire ... Badly," *Foreign Policy*.
- Shapiro, Ian. 2005. *The Flight from Reality in the Human Scienc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pence, Jonathan D. 2005. "The Once and Future China," *Foreign Policy*, Vol. 146, 44-46.
- St. John, Ronald Bruce. 2004. "Parallels Between Iraq War and Vietnam War Are Piling Up: Dead Soldiers, Dead Women, Dead Children, and Other Results of U.S. War," *The Progress Report*.
- Summers, Jr. Harry G. 1995. *On Strategy: A Critical Analysis of the Vietnam War*. New York: The Random House Publishing Group.
- Swaine, Michael D. and Ashley J. Tellis. 2000. *Interpreting China's Grand Strategy: past, President, and Future*. RAND.
- Tocqueville, Alexis de. 1990. *Democracy in America*, Vol. I. New York: Vintage Books.

- Walt, Stephen. 2011. "When Did the American Empire Start to Decline?" *Foreign Policy*.
- Weber, Max. 1968.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New York: Bedminster Press.
- _____. 1990. *Yugyowa dogyo*. Seoul: Munyechulpansa.
- _____. 2011. *Jigeobeuroseoui hangmun*. Paju: Nanam.
- Whitehead, Alfred N. 1950. *Science and the Modern World*. New York: The Macmillan Co.
- _____. 1959. "An Appeal to Sanity" in A. H. Johnson, ed. *Whitehead's American Essays in Social Philosoph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11-135.
- _____. 1955. *Adventures of Idea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 _____. 1956. *Dialogues of Alfred North Whitehead*, as recorded by Lucien Price.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 _____. 1956. *Modes of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 1978. *Process and Reality*. New York: The Free Press.
- _____. 1959. *Symbolism: Its Meaning and Effect*. New York: Capricorn Books.
- Wilson, James Lindley and Jonathan Monten. 2011. "Does Kant Justify Liberal Intervention?" *The Review of Politics*, Vol. 73, No. 4, 633-647.
- Yi, Hyunhwe. 2005. "Migung hyeongmyeongui jonggyojeong giwon(1): Hwaiteuhedeuwa talgeundae yeoksahagui saeroun jipyeong," *Hwaiteuhe-deuyeongu* je11jip, 9-40.
- _____. 2007. "Somyeongeuroseoui jeonjaeng; Migung daeoejeongchaeng jeongsingwa sinui nunmul," *Hyeondaesahoewa jeongchipyongnon*, 7-59.
- _____. 2009. "Gukjejeongchijeong hyeonsiljuuiui heosanggwa silsang," *Jeongchiwa pyeongnon* je6jip, 55-96.
- _____. 2009. "Migung daeoejeongchaegui gwanseupgwa 21segi mijunggwangyeui jeonmang," *Miguksayeongu* je29jip, 157-198.
- _____. 2010. "Hwaiteuhedeuwa geundae segyegwanui cheolhakjeong seongchal," *Hwaiteuhedeuyeongu* je21jip, 123-165.
- _____. 2011. "Jeongdangdaebyeoninui 'mal'gwa hangukjeongchiui gwanseup," (Sa)hangukjeongchipyongnonhakoe pyeon, *Midicowa gongnonjeongchi: jeongchipyongnoniran mueosinga?*, 173-213. Goyang: Ingansarang.
- _____. 2013. "Godae jungse siminui yeoksajeong jeongae: 'Homo pollitikuseu'eseo

- ‘Homo ekonomikuseu’ro,’ I Dongsu Pyeon, *Simineun nuguinga*, 33-78. Goyang: Ingansarang.
- _____. 2014. “Jugwanjuuijeong wollliwa migukjeong gukjejeongchihagui paguk: Guseongjuuiwa poseuteumodeonijeumui gycongu,” *Hwaiteuhedeuyeongu je28jip*, 7-66.
- _____. 2015. “‘Somyeongeuroseoui yeoksahak’gwa ‘Jeongchihageuroseoui yeoksahak’ - Seoyanggwa junggung yeoksa seosul jeongsinui daebi,” *Hangukdongyangjeo ngchisangsayeongu je14gwon 2ho*, 159-223.
- _____. 2015. “‘Jeonjaenggwa pyeonghwa: Migung jeonjaeng suhaengbangsigui ‘Banjeongchijeong’ seonghyangeul saryeo,” *Jeongchaegyeongu 186ho*, 35-83. Gukgaanbojeollyagyeonguwon.
- “Breaking the Cycle of North Korean Provocations,” Hearing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One Hundred Twelfth Congress, First Session (March 1, 2011).
- “Cheon Yeongu 前 Oegyoanbosuseok ‘北 chejebunggoejeonlyag gadonghaeya,’” *Yeonhamnyuseu* (2016. 6. 16.)
- “Forum: Emotions and World Politics” in *International Theory*, Vol. 6, No. 3 (2014).
- “Na Gyeongwon ‘北 lejim cheinjido saenggaghaebwaya hal ttae,’” *Yeonhamnyuseu* (2016. 2. 15.)
- “Obama ‘Junggugui daebukjeongchaegi bakkwigo itda,’” *Hangugilbo* (2013. 3. 14.)
- “(Saseol) 北4cha haeksilheom, Bang daetongnyeongi 美中 ‘Kkeutjang jejae’ kkeuleonaela,” *Dongailbo* (2016. 1. 7.)
- “木 ‘Ginjang gojo → Daehwa → Bosang yogu ... 對北 Aksunhwan gori deo isang an dwae,” *Hangukgyeongje* (2013. 4. 9.)
- “木|daetongnyeong, Daebukjeongchaeng daejeonhwan ... ‘北jeonggwon byeonhwa’ chejebunggoekkaji eongeb(Jonghap),” *Yeonhamnyuseu* (2016. 2. 16.)